

# LG화학, 전기차 14만대분 고용량 배터리 원재료 확보

〈수산화 리튬〉

加 네스마스카라툼과 공급계약  
2020년부터 5년간 연 7000톤  
“안정적 배터리 원재료 공급 집중”

LG화학이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수산화 리튬’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확보했다.

LG화학은 캐나다 네스마스카라툼(Nemaska Lithium)과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2020년 하반기부터 매년 7000톤의 수산화 리튬을 5년간 공급받게 된다.

7000톤 규모는 고성능 전기차(한 번 충전으로 320km 이상 주행 가능) 기준 약



배터리 양극재 참고 이미지.

/LG화학

14만대 분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수산화 리튬은 배터리 용량을 높이는 ‘니켈’과 합성이 용이해 고용량 전기차 배

터리 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노트북·휴대폰 등 정보기술 기기용 배터리는 주로 탄산 리튬이 사용된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원가 절감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양극재 내 값 비싼 코발트 함량을 줄이고 니켈 함량을 높이는 추세다. 기존 NCM622 양극재 대신 NCM712 등 하이-니켈 양극재가 채용된 배터리가 개발되고 있다.

니켈은 보통 코발트·망간 등과 결합해 전구체를 이룬 후 고온에서 리튬과 함께 녹여낸 뒤 합성시키면 양극재가 된다. 양극재는 배터리 4대 원재료 중 하나다.

하지만 니켈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리튬과 합성이 잘 안 된다. 따라서 니켈 함량이 높은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에는 탄산 리튬 대비 녹는 온도가 낮은 수산화 리튬이 사용된다. 수산화 리튬의 녹는 온도는 섭씨 462도, 탄산 리튬이 녹는 온도는 섭씨 723도다.

유지영 LG화학 재료사업부장은 “고

용량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수산화 리튬 수급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발맞춰 안정적인 배터리 원재료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여러 배터리 원재료 업체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에는 세계 1위 코발트 정련회사인 중국 ‘화유코발트’와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 법인을 설립, 원재료 공급 보장 및 제품 우선 공급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황산니켈 생산업체인 캄코(고려아연 자회사)의 지분을 10% 갖췄으며 2016년 9월에는 GS이엠의 양극재 사업을 인수, 양극재 생산기술 고도화 및 전구체 제조 기술력을 구축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한국타이어, 글로벌타이어 시장 영토확장

獨 대표 유통점 ‘라이펜 물러’ 인수  
“유럽 전지역 통합 시스템 구축할 것”

한국타이어가 독일의 타이어 유통점을 인수하며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한국타이어는 독일 대표 프리미엄 타이어 유통업체 ‘라이펜 물러’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4일 발표했다. 라이펜 물러는 1966년 1호점을 시작으로 44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직원 수는 700여 명이다. 연간 승용차 타이어, 트럭버스용 타이어 등을 240만 개 이상 판매하는 실적을 내왔다.

한국타이어는 라이펜 물러가 보유한 매장을 통해 유통사업 확장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독일에 유통사업 모델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유통 시스템 확장으로 유럽 전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유통



라이펜-물러.

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경쟁력을 강화해 타이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유통 중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일찍부터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유통 사업 강화와 혁신적 유통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호주의 5대

타이어 유통점 중 하나인 작스 타이어즈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앞으로도 글로벌 리딩 브랜드 위상 강화를 위해 대규모 생산시설과 R&D 센터, 혁신적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 SKT-엔비디아 GPU 클라우드솔루션 사업 추진

고가의 GPU 효율적 사용 가능

SK텔레콤이 엔비디아코리아와 손잡고 국내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코리아와 GPU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 외에도 아이엔소프트, 베이넥스도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SK텔레콤 등은 연내 상용 제품을 출시하고,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년 간 자체 개발해 자사 데이터센터에 적용한 사설 GPU 클라우드 솔루션 ‘SCALE(SKT Cloud for AI Learning)’를 제공한다. 아이엔소프트는 솔루션 판매 및 유지·보수를, 엔비디아코리아와 베이넥스는 AI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SK텔레콤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아이엔소프트와 함께 ‘GP

U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보안·공장자동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과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GPU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GPU 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설 GPU 클라우드 솔루션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SK텔레콤이 개발한 GPU 클라우드 솔루션은 고성능 AI 연산에 필요한 다수의 GPU 자원을 가상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상화된 GPU 자원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고가의 G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해당 솔루션은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최신 딥러닝 프레임워크 등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AI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 “공공기관 통지서 모바일 메시지로 전달”

KT,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KT가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모바일통지(공공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보내기 위해 사용하던 종이우편 형태의 고지서와 통지서 등을 모바일 기반 전자문서 형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 개개인에게 보내는 고지서, 통지서 등을 종이우편으로 전달했다. 우편 발송 방식은 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전달·수령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으로 도입된 모바일 앱 서비스도 이용을 위해 앱을 설치하고 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확산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T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보내는 고지서, 통지서를 모바일 메시지로 보내는 사업을 기획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시범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서비스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KT

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속한 전달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T는 이를 다른 공공기관에까지 확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신청했다. 다른 이동통신사와도 협정을 맺고 통신사에 상관없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의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T의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공공기관의 고지서, 통지서 등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수령한 모바일 통지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발신번호로 바로 문의할 수 있다. /안병도 기자

## LGU+ ‘즐거운 고객센터’로 노동부 장관상 수상

LG유플러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18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고객센터 상담사를 위한 복지 제도 마련 및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 우수사례로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는 감정노동 근로자의 감정노동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삶의 행복을 위한 복지 제도 마련 및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6개 업체 중 최우수사례로 수상했다.

LG유플러스 모바일 고객센터는 ▲환경조성 ▲마음지킴 ▲감정보호 ▲자기성장 ▲복리후생이라는 5가지 주요 내용으로 상담사 복지 제도를 운영한다.

사옥에서는 피트니스센터와 요가실, 안마실, 휴게실을 운영해 감정노동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울러 심리상담실과 블루박스(사내소리함)를 운영해 감정노동으로 지친 근로자의 ‘마음지킴’에 힘쓰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4일 SK텔레콤 올지로 본사에서 SK텔레콤, 엔비디아코리아 등이 사업 추진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SK텔레콤 박진호 ICT기술원장, 엔비디아코리아 유응준대표, 아이엔소프트 황광익대표, 베이넥스 연광홍 대표. /SK텔레콤

## LG 휘센 에어컨 전기 아낀만큼 포인트 받는다

LG전자는 휘센 에어컨을 구입하는 고객이 전기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LG 휘센 절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전력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 DR(소규모 전력 수요관리) 시범사업의 일환이며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전력거래소가 에너지 절감 미션을 내리면 LG전자의 인공지능 씽큐(ThinQ) 서버가 캠페인에 참여하는 가구에서 사용하는 휘센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으

로 전기 사용량을 줄인다. 미션이 해제되면 에어컨은 자동으로 고객이 원래 설정한 희망온도에 맞춰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가구수 가운데 70% 이상이 해당 방식 절전에 참여하는 경우 1GW(기가와트)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원전 1기가 만드는 전력량에 상당한다.

이 캠페인은 다음달 말까지 LG 휘센 에어컨을 구입한 고객을 가운데 LG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선착순 1000명이 대상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